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KAPEX) 사업” 캄보디아 사후관리 프로그램(현지 워크숍 개최)

1. 출장목적

- KAPEX 사업성과의 효과적 관리와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13년 KAPEX 사업 대상국이었던 캄보디아의 KAPEX 사후관리 프로그램 추진
 -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 정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 제고 및 관련 법체계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현지 워크숍 지원
 - 한국의 농업지도·보급 관련 조직, 정책, 성공적 사례 소개
 - 사업 완료 이후 액션플랜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확인을 위한 관계자 면담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최은지 초청연구원	프놈펜 (캄보디아)	2015. 11.29~12.2 (2박 4일, 여비는 2박 3일로 산정)
김정화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관		

3. 주요 내용

- Post-KAPEX 워크숍 개최
 -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KAPEX 사업 결과 공유
 -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정책 법체계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소개
 - 2015년 5월 새롭게 도입된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 정책에 대한 소개 및 발전방안 모색
 - 캄보디아 농업기술개발과 지도·보급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토론
- KAPEX 사업 성과관리
 - KAPEX 사업을 통해 도출된 액션플랜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확인을 위한 관계자와의 면담

가. 워크숍 (11.30)

□ 주요 회의 내용

○ 개회식

- General Directorate of Agriculture(GDA) 부국장(Dr. Srun Sokhum)은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워크숍의 취지 및 목적을 소개함. 특히 KAPEX사업 공동조사의 결과가 캄보디아 코문 단위의 농업지도·보급 체계 개선과 농촌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연구-교육-보급 시스템의 개선 방안 모색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음을 강조함.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차관(Dr. Ty Sokun)은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과거에는 1헥타르당 2.5톤의 벼 생산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현재는 3.5톤까지 생산력이 향상되었으며, 빈곤율도 상당히 감소하였음. 캄보디아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중 기아 비율을 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그러나 기후변화 및 농경용수의 부족 등이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킴. 아울러 연구자, 교육기관, 개발기관, 민간부문의 상호간의 협력과 협력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가자 및 행사를 지원해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측에 감사를 포함.

○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 정책 소개(Dr. Mao Minea, DAE)

- 캄보디아의 현 농업지도·보급 체계, 구조, 문제점, 주요 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함.
- 주된 문제점으로는 미약한 보급 체계, 불충분한 법 제도 및 가이드라인, 인력 및 자금의 부족, 연구-보급-교육-농민-시장의 미약한 연계(linkage), 공공-민간-NGO간의 협력 채널 부족, 적절한 기술 및 정보의 부족 등을 지적함.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 농업지도·보급과(DAE)는 농업지도·보급 서비스를 확대하여 캄보디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 (1)제도 개선, (2)인력양성, (3)기술개발, (4)농촌지도·보급 책자 개발, (5)농촌지도·보급 서비스 전달력 향상을 행동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
- 2015년 5월 새롭게 도입된 정책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캄보디아의 농업지도·보급 정책에 대해 개괄함. 특히 1-2개월 내에 신규로 창설될 예정인 농업지도·보급 자문위원회(Agricultural Extension Advisory Committee) 설립 진행 현황에 대해 공유함. 현재 캄보디아에는 농업지

도·보급 방식 등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음. 위원회는 농림수산부 각 부처(directorate)의 기술전문가, 학계,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농업지도·보급에 있어 가장 적절한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위원회 밑으로는 소위원회(subcommittee) 둘 예정임.

- 한국의 지원을 받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지도소(Commune Agricultural Center)에서는 코뮌 소속 농촌지도사(Commune Extension Workers, CEW)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음.

○ AUSAID의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 지원 사례 소개(Mr. Heng Bunny, DAE)

-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의 역사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된 호주 AUSAID의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 지원 사례의 각 단계별 세부 사업 요소를 설명하였음.
-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 활동은 1957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농업부는 extension unit을 설치하여 TV, 라디오, 광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농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였음. 1970년대 농업지도·보급 관련 인프라가 모두 파괴된 이후 1986년 extension office가 신설되면서 활동을 재개하였음. DAE가 설립된 것은 1995년임.
- 호주의 지원은 농업지도·보급 서비스의 전달보다는 영농시스템을 활용한 정부 차원의 농업지도·보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치중하였음. 지방(province), 지역(district), 코뮌(commune)의 영농시스템 설립과 연구·보급·도입의 연계 체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주로 하였음.
- (ACR: 1991~1995) 첫 단계에서는 주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였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관련 공무원과 농촌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10개월간에 걸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되었음.
- (CAAEP Phase I, 1995-2001) 다음 단계에서는 중앙, 지방, 지역 차원의 제도 개발에 초점을 두었음. 그 결과, 1995년 DAE가 설립되었으며 농업지도·보급 방식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음.
- (CAAEP Phase II, 2001-2006)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도적 관리 강화를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또한 참여적 접근방식의 교육 및 지도·보급을 도모하였음.

- 한국의 농업지도·보급 체계 및 성공 사례 소개(김정화,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관)
 - 우리나라 농가현황, 농촌지도·보급 체계 및 농촌진흥청의 역할, 주요 성과,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보급, 연구,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노력, 성공적 농촌지도·보급 사례(녹색혁명) 등에 대해 소개
 - 농촌진흥청 본부에는 1,200명의 연구인력, 93명의 농촌지도인력, 507명의 행정인력이 있음. 또한 9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으며 159개의 농촌지도·보급 센터를 가지고 있음. 본부와 지역사무소의 인력 전원은 4년제 이상의 학위를 보유함.
 - 농촌지도·보급 프로그램은 곡물(우수한 품질의 새로운 벼 종자, 토양검정에 기반 한 비료 권고, 병충해 예측), 원예작물(에너지 절감 기술), 축산(송아지 성장속도 가속화, 병충해 방지) 등에 집중하고 있음.
 - R&D 기술 보급을 위해 농민들에게 새로운 과학 지식 및 방법을 전수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 이 외에도 농촌지역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자원의 활용, 농촌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함.
 - FAO는 농촌지도·보급 및 개발 연계의 가장 효과적이며 우수한 사례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음. 한국 또한 비효율적인 연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농민과 연구자들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늘리고 농민, 연구자, 농촌지도사들이 함께 현장에서 연구하는 비중을 늘림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었음.
 - WTO/DDA 협상에 따라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한국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 식품 소비형태 변화에 따른 쌀 수요 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타라이스'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음.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최고 품질의 쌀을 개발하고 모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 소비자들의 낮은 신뢰, 정부기관의 개입에 대한 타 기관 및 쌀 생산업체들의 비난 등의 어려움이 있었음. 농민 및 공무원의 공동 참여,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타라이스 프로젝트 결과 생산 농가 소득이 114.8% 증대되었으며, 기술 증진 및 신뢰 형성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음. 현재는 '벼 직파재배'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질의응답
 - 한국의 농촌지도·보급 방식: 농가 현장방문, 집단 교육, 통신수단을 활

융합.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도 활용하지만 한계가 있어 집단교육과 통신수단 활용 방식을 주로 하고 있음.

- 녹색혁명이 소득증대 및 경제발전에 미친 효과: 당시 대부분 농민이었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었음. 통일벼 보급 사업을 통해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음. 이러한 신뢰 형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음.
- 청년층 농업 기피 현상: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농업을 기피하는 문제는 한국 또한 현재 겪고 있는 문제임. 농진청은 젊은 농업생산인(future farmers) 육성을 위한 지도 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

- 참가자들은 청취한 발표를 바탕으로 3조로 나누어 현 농업지도·보급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별첨1>과 같이 제시함.



<워크숍 사진>

나. 캄보디아 농촌지도·보급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12.1)

□ 주요 회의 내용

- 워크숍(11.3)의 주요 결과 정리
- 캄보디아 농촌지도·보급 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면담

□ 주요 회의 결과

- 워크숍 주요 결과 정리
 - 워크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보고서 초안을 함께 검토함.

- 캄보디아 농촌지도·보급 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농촌지도·보급-연구-교육의 연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관련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임.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도 오지만 토론을 통해 각 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과에 대해 성취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형성된 공감대를 중심으로 다음 사업 체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음. 한국의 경험상 자주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완성하는 것이 핵심적이었음. 한국의 경우 1972년 이전까지만 해도 농촌지도사업이 각광받지 못했었음. 그러나 녹색혁명의 성과로 비로소 각광을 받기 시작했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공동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함. 또한 성과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면 예산 및 인력 또한 따라오게 됨.
 - 상설협의체(TF) 운영 제언: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나 상설협의체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DAE가 주도하고 CARDI 및 주요 농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캄보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 1개에 대해 농업지도·보급의 성공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DAE가 전담하는 작물 외 축산, 수산업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작물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씩 협의체를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선은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공식적인 협의체(task force)를 설립하여 성공사례를 축적해나가고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교육기관의 기능: 한국의 경우 예전에 서울대학교에 농촌지도과가 있었는데 교수들인 열정과 의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어떤 자세로 일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하였음. 학계의 역할은 농촌지도·보급관련 연구가 아닌 농촌지도사업의 정신을 심어주는 교육 및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농촌지도·보급 관련 법: 관련된 법으로는 1962년 제정된 “농촌진흥법”이 유일함. 규제가 아닌 진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시대의 주요 여건을 잘 반영하였음.
 - 농촌지도·보급 체계의 운영: 체계는 있으나 실제 운영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지도·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하

- 고 이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계속 추진함으로써 연속성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한국의 경우 농촌지도 공무원 직군을 별도로 선발함.
- 운영자금 부족 문제: 자금보다는 농촌지도사들의 열정과 역량이 중요함. 따라서 농촌지도사들을 잘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지도·보급 총괄부서인 DAE의 위상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것으로 보임. DAE의 역할 및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함.

다. KAPEX사업 성과 확인을 위한 관계자 면담

□ 면담자: Dr. Mao Minea(Director, DAE), Mr. Sun Try(Vice Chief of Media Office, DAE), Dr. Prum Somany(Deputy Director of Dep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주요 면담 내용

- 2013년 KAPEX사업 이후 주요 성과 및 진척사항(결과물의 활용 및 액션 플랜 실행을 위한 노력)
 - ODA 사업
 - ‘Policy on Agricultural Extension in Cambodia’ 발간 (2015년 5월, USAID 지원)
 - DAE 전략서(Stratgy Plan for 2014-2018) 작성 시 활용 (2014년)
 - 농업지도·보급서(Extension material) 발간 예정*
 - * 2014년 농림수산부 승인, 2016~2019년 기획·개발할 계획(수확 후 관리 기술, 벼 생산, 벼 종자 개발 등의 내용 포함)
 - 농민들을 대상으로 벼 생산 및 벼 종자 개발 관련 시연 및 교육과정 제공 예정
 - 농업지도·보급 관련 직원(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 및 관계자 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 추진 예정인 ODA 사업(캄보디아 농촌개발 및 농업지도체계 개선사업, 2017~2021년 예정)
- 문제점 해결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도전과제
 - DAE는 General Directorate of Agriculture(GDA)의 한 부서이며 GDA는 농작물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함. 이에 반해 수산물, 축산물 등은

다른 directorate에서 담당함. 이로 인해 농작물 이외 다른 농업생산물 관련하여 DAE보다 상위 부처인 각각의 directorate의 업무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GDA를 거쳐야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 실제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매우 복잡함. 제출한 ODA제안서는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농어촌공사의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최종승인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음.

○ KAPEX사업에 대한 전반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 한국과 캄보디아의 연구진이 함께 일하며 실제 농민들을 만나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물은 ODA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훌륭한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됨.
-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ODA 제안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매년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의 형식으로 한국 전문가와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현장에 방문하여 농민들을 만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이 매우 유익했음. KAPEX사업을 통해 캄보디아 농업지도·보급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관련 기관간 미흡한 연계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음.

4. 일정표(방문기관 등) :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	11/29(일)	인 천 (19:10)	프놈펜 (22:50)	○KE689	○출국
2	11/30(월)	체 제	제	○프놈펜 호텔	○현지 워크숍
4	12/1(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	○Wrap-up meeting ○관계자 면담(성과 확인) ○행사 정산
5	12/2(수)	프놈펜 (23:50)	인 천 (06:50)	○KE690	○귀국